MILLET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진실을 만나다 -밀레

光州日報

광주 3/7℃ 목포 3/7℃ 여수 7/10℃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공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단기 4345년 (음력 11월 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382호 1판 2012년 12월 17일 월요일

朴 "4대 질환 건보 적용" 文 "복지예산 39조 확보"

대선후보 朴-文 첫 양자 TV 토론

18대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막판 피 말리는 접전에 돌입했다. 예측불허의 박빙 승부 속에서 박 후보 측은 "이제 승기를 굳혔다", 문 후보 측은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됐다"고 각각 주장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쳤다.

이 같은 안개 판세 속에서 두 후보는 이날 밤 8시 중앙선관위 주최 마지막 TV토론에서 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해 격돌했다. 〈관련기사 3면〉

KBS와 MBC, SBS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동시에 생중계된 이날 토론에서 두 후보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방안'과 국민 질문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육제도 개선방향' 등 4가지 주제로 2시간 동안 치열한 논리 대결을 펼쳤다.

특히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사퇴로 '질문→ 답변→ 반론→ 재반론'이 이어지는 등 토론 방식이 변경되면서 두 후보는 이전 두 번의 토론보다 훨씬 열띤 공방을 주고 받았다.

기조연설에서 문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 이뤄질 과제는 새정치와 파탄난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며 "5년 동안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이번 대선은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 준비된 미래로 나아가느냐의 선택"이라면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국민행복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국정 이끌어갈지"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박 후보는 "국정운영의 최고 가치를 국민행복에 두겠다"며 "이를 위해 국민행복 10대 약속을 했으며 그 중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를 핵심으로 추진해 최종적으로 중산층을 70%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모든 문제의 출발은 제왕적 대통령에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민이 반대해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지만 저는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을 역설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 문 후보는 "애를 마음 놓고 키우기 위해서는 무상급식·무상보육·반값등록금을 해야 한다"며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늘리고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꼭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대해서 연간 39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0~5세 보육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한편 임신기간 근로단축제 도입 등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하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고령화 대책으로는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며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100% 건강보험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꼭 투표하세요"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16일 광주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선관위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후보자 공약 바로 알기 캠페인'과 함께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막판 치닫자 진흙탕 싸움

朴-文 캠프 네거티브 공방 가열

선택 2012 대선 D-2

대선이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양측의 비난전은 물론 SNS)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진흙탕 싸움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현재 양 캠프 진영은 물론 SNS와 인터넷에선 박 후보의 대선 승리 기원 억대 굿판과 문 후보의 굿판, 박 후보 종교단체 신천지 연루와 문 후보가 인민군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무차별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양측은 '내가 하면 검증, 남이 하면 네거티브'라는 식의 이중잣대를 들이대면서 상대 후보 흠집내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 지지자들이 단단히 결집한 가운데 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중도·부동층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가 이뤄야 할 중요한 가치가 정치쇄신이라면 마땅히 이번부터 흑색선전의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이 순간부터 흑색선전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공당이 젊은 여성 한 명을 집단 테러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도 같은 날 경남 양산 유세에서 이날 서울시선관위가 박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 소속으로 알려진 윤모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엄청난 알바들이 인터넷 여론조작을 하는데, 그 실체의 일당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양측간 치열한 공방 속에 안철수 전 후보가 네거티브 공세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난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 부끄러운 승리는 영원히 패자가 되는 길"이라고 적었다. 그는 지난달 23일 후보직 사퇴 이후 '새 정치'를 강조하며 네거티브 등 기성 정치권의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정희 "정권교체 위해 대선후보 사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가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민주·개혁세력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뤄내기 위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그는 "친일의 후예, 낡고 부패한 유신독재의 뿌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재집권은 국민에게 재앙이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사퇴는 새누리당 박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양자대결 구도로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 성향의 표를 문 후보 쪽으로 총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국고보조금 27억원 반환 여부에 대해 "현행 법에서는 중간에 (후보) 사퇴를 한다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법대로 한다"고 말해 반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선대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 후보 사퇴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사퇴로 이날 저녁 8시 지상파로 생중계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대선후보 3차 TV토론회는 박 후보와 문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양자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대학교행정대학원
2013학년도 모집분야
▪석사과정(야간) : 광주반, 여수반
▸일반전형('12.12.19까지 접수)
▪최고정책과정 ▪관리자과정
전화 062-530-5196 FAX 530-2266
홈페이지 : http://cnugpa.kr

역시! 전남쌀
전국 브랜드 평가
12개중 4개 뽑혀
최고품질 재입증

올 가을 세차례 태풍 피해에도 전남산 쌀 품질은 우수했다.

전남도는 16일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2012년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전국 12개 중 이 지역 쌀 4개가 선정돼 10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의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브랜드별로는 함평 '나비쌀', 보성 '녹차미인보성쌀', 영광 '사계절이 사는집', 장흥 '아르미쌀'이 최종 선정됐다. 해남 '한눈에반한쌀'은 12대 브랜드와는 별도로 선정하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전남 쌀은 쌀 주산지와 친환경 농업 메카라는 명성에 걸맞게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쌀로서 입지를 확고하게 굳혔다.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0개 회원단체) 주관으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쌀 관련 평가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 1870여 쌀 브랜드 중 각 시도의 추천을 받은 4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품질평가, 소비자·전문가 패널 식미평가, 서류·현장평가 과정을 거쳐 12개 브랜드를 최종 선정한다.

/오광록기자 kroh@

건강의 섬 완도에서 새해 큰 소망을 빌어보세요!!!
2013 완도 다도해 일출공원 해맞이 축제

2013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의 섬 완도에서 해맞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양한 해맞이축제 프로그램으로 새해를 여는 건강의 섬 완도에서
힘차게 솟구치는 일출을 감상하며 새해 소망과 희망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의섬 완도
Tel. 061-550-5114
http://www.wando.go.kr

| 행사명 | 2013 일출공원 해맞이축제
| 일 시 | 2013. 1. 1(화) 06:00 ~ 08:00
| 장 소 | 완도 일출공원 일원(완도타워)
| 내 용 | 공연행사 : 풍물패 길놀이, 희망의 노래, 희망의 북소리
참여행사 : 신년덕담, 소원지 달기, 영상메세지, 떡국 나누기 등
부대행사 : 송년 콘서트(2012. 12. 31)